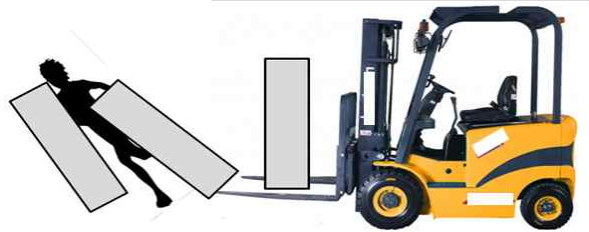


# 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

## 재 해 개 요

‘15. 12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세워놓은 새들(압력용기 받침대) 사이에서 피해자가 사상 작업 도중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새들을 건드려 새들이 넘어지며 새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

## 재 해 상 황 도



기인물(지게차), 가해물(새들)

재해상황도

## 재 해 발생 상황

○ 사고현장에는 사상작업을 위해 새들을 약 1m 간격으로 3개를 세워놓았으며, 피해자는 첫째 새들과 둘째 새들 사이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던 도중

-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로 새들을 들기 위해 포크를 상승하던 중 포크 끝부분이 둘째 새들을 건드려 재해자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끼임

### ※기인물(지게차)

- 적재능력 : 2,980kg,

- 디젤(53PS),

- 포크길이 : 1,050mm

### ※가해물(새들) : 약 3톤(길이 3,300mm × 폭 480mm × 높이980~1,500mm)

○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함

○ 지게차의 포크는 제작당시보다 1,200mm 긴 2,250mm로 개조하여 사용함

## 재해 발생 원인

- 중량물인 새들을 세워놓고 근로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상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옆에 있던 새들을 운반하는 도중 잘못 건드려 새들이 넘어짐
- 지게차를 사용하여 새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
-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함
- 제조 당시보다 포크 길이를 길게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함

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운반중인 화물에 접촉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, 작업지휘자(또는 유도자)를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함
-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
-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야 함
- 지게차는 안전한 유지·관리에 대하여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(포크길이)을 준수해야 함

## 관련 법규

###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

- ①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###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